

교수님, 강의계획서는 언제쯤...?

강의계획서 게시율 조사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수강희망과목담기(과목담기)를 하던 A(경영학 2016) 씨는 이를 포기했다. 빈 강의계획서를 때문이다. A 씨는 “강의계획서가 작성돼있지 않으면 그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성민(언론정보학 2017) 씨도 마찬가지다. 오 씨는 “수업개요, 반영비율, 주차별 수업내용까지 과목담기 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렇지만 텅 빈 강의계획서 때문에 강의 이름만으로 수업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강의계획서 게시율 높은 단과대 공통점은 교수 협조

학생들에게 강의계획서는 강의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의계획서는 한 학기 동안 수강할 수업의 수업목표와 수업유형, 주차별 수업내용 등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우리신문은 2차 과목담기 기간이었던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 양일에 걸쳐 각 단과대학별 강의계획서 게시 비율(후마니타스 칼리지, 자연계열, 기타 강의 제외)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강의 중 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강의 비중’은 서울캠퍼스 34.2%, 국제캠퍼스 23.2%로 나타났다. 10개 중 3개 강의는 강의 이름만 보고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과대학 전체 강의 중 강의계획서가 게시돼있는 비율(게시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단과대학도 4군데나 있었다. 그중 약학대학의 게시율은 35.10%로 가장 낮았으며 음악대학(39.6%), 외국어대학(48.4%), 경영대학(4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90% 이상의 게시율을 보인 단과대학은 7군데로 동서 의학과(100%), 의과대학(100%), 자율전공학과(100%), 생명과학대학(93.7%), 미술대학(93.2%), 체육대학(91%), 생활과학대학(90.5%) 이다. 가장 낮은 게시율을 보였던 약학대학의 이경태 학장은 “약학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라 논문 작성, 실험, 연구과제 등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바쁘시다. 그래서 업로드가 늦어지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모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어대학 행정실의 수업관리 담당자는 “교수님들께 입력 기간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재촉을 하는 데

〈2차 수강희망과목담기 기간의 강의계획서 미게시율〉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단과대학	미게시율	단과대학	미게시율
약학대학	64.9%	외국어대학	51.6%
음악대학	60.4%	예술디자인대학	35.9%
경영대학	51%	전자정보대학	22.7%
호텔관광대학	40.9%	응용과학대학	17.2%
한 의과대학	33.2%	공과대학	15.5%
무용학부	25%	체육대학	9%
치과대학	23.9%	국제대학	8.5%
문과대학	23.6%	생명과학대학	6.3%
이과대학	20.1%	동서의과학과	0%
정경대학	19.5%	(합) 313/1348	23.22%
간호과학대학	15.2%		
생활과학대학	9.5%		
미술대학	6.8%		
자율전공학부	0%		
의과대학	0%		
(합) 723/2114	34.20%		

* 조사일: 2018년 1월 17일-18일

* 미게시율 = (강의계획서가 올라가지 않은 강의 수/ 단과대학 전체 개설강의 수)*100

* 단과대학 별 개설강의 중 ‘출업논문’ 과목은 조사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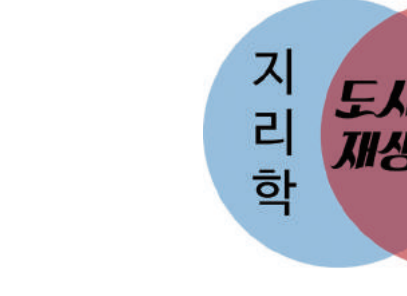
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목담기 기간까지 강의계획서를 올리 지 않은 약학대학 B 교수에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같은 강의를 담당하던 다른 교수님이 연구년을 가셔서 강의계획서 업로드 주체를 혼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대학 C 교수는 “입력하는 것을 놓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높은 게시율을 보이는 단과대학의 경우 공통점은 교수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행정실 김은정 계장은 “행정실 측에서는 여러 차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교수님들께서 바쁘시지만, 수업이나 계획서 작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로드해 주신다”라고 말했다. 강의계획서를 관리하는 학사지원과는 매년 6월과 12월, 즉 1차 과목담기 전에 각 단과대학에 강의계획서 업로드에 대해 첫 안내를 한다. 이후 과목담기 기간, 수강신청기간, 개강일까지 계속 단과대학에 업무 연락과 유선 연락을 반복한다. 학사지원과의 안내를 받은 단과대학은 개별 교수에게 이를 다시 안내한다. 학사지원과의 강의 담당직원은 “강의계획서 미작성에 대해 제재할 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는 교수님들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과대학이나 학사지원과가 더 이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의계획서 입력기간까지 게시율을 100%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사지원과가 파악하고 있는 지난 3개 학기의 최종적인 강의계획서 업로드 비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이는 4월에 파악된 것으로서 희망과목담기와 수강신청기간이 함참 지난 뒤다. 학생들의 시간표가 이미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강의계획서 게시 여부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하기도

과목담기 기간에 올라오지 않는 강의계획서 때문에 불편함을 토로한 D(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 2016) 씨는 “과목담기를 놓치면 사실상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과목담기 전에 다음 학기 수업 정보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희망과목담기 전에 계획서를 올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강의계획서 작성 여부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강의계획서를 업로드하기 위해 연세대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45조 제2항의 내용을 지난 2007년에 신설했다. 그 내용은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건국대, 서강대, 인하대학교 등도 교수업적평가에 강의계획서 게시 여부를 반영하여 교수의 강의계획서 게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전공 선택 폭 넓어질듯 2018학년도부터 융합전공 운영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교육부의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 의거해 도입된 ‘융합전공’이 새 학기부터 우리학교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기존 학과(전공)가 융합해 새로운 전공을 편성하는 것이며, 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융합전공 운영으로 기존 전공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융합전공별로 재학생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사지원과 김경희 부처장은 “기존 학과운영에서 탈피해 유연한 학과제도로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융합전공 운영 및 시행세칙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융합전공 운영으로 학생들의 전공 선택 자유와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6개 융합전공 신설

도입 첫 해인 2018년에는 ▲도시재생전공(지리학, 주거환경학), ▲글로벌 엔지니어링(사회기반시스템공학, 스페인어학, 프랑스어학, 러시아어학), ▲글로벌 문화기술(일본어학, 영미어문학, 영미문화학, 소프트웨어융합학), ▲4D 아트(도예학, 환경조경디자인학), ▲아트&테크놀로지(디지털콘텐츠학, 소프트웨어융합학), ▲스마트팜공학융합전공(원예생명공학, 유전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등 6개 융합전공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백지원 계장은 “융합전공 신청을 원하는 두 개 이상의 학과가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시행세칙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융합전공 설치는 2개 이상의 기존 학과(전공) 각각의 교수 3분의 1이

상, 또는 각각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이 설치를 결정한다.

국제캠 승인완료 서울캠은 늦어져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과 백지원 계장은 “이과대와 경영대로부터 데이터과학융합전공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위의 6개 전공 외에도 이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융합전공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전공)별 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참여 학과의 기존 과목뿐 아니라 융합전공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으며 국제캠 5개 전공은 2월 초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각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확립했다. 백 계장은 “국제캠퍼스의 5개 전공은 다 승인이 났지만 서울캠퍼스의 도시재생전공은 결정이 늦어졌다”라며 “지리학과 주거환경학과로부터 신청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시행세칙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계장은 “도시재생전공은 올해 시행 확정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학기 혹은 2학기부터 학생들의 융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융합전공에 참가하는 학과 학생은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1전공 허가는 입학 후 3~5학기 내에 융합전공 지도교수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융합전공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 학생은 다전공으로 이수 가능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영어학부 2016) 씨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아래 융합전공 제도를 도입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오는 3월 1일까지 융합전공 개설을 완료하고 1학기 말부터 이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전했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8. 3. 12.(월) ~ 4. 20.(금)

■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018. 3. 9.(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2018. 3. 7.(수), 3. 8.(목) 17:30

■ 일본어·중국어회화 : 2018. 3. 7.(수)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레벨	Ted Talk	Academic Writing Workshop		Screen English	Easy Book Club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수, 금)		오후반 19:00~20:20 (수, 금)		오후반 18:00~20:00 (목)		
	레벨	초급1		초급2		Discussion and Debate		
	수강료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목)		오후반 19:00~20:20 (월, 목)		오후반 17:30~18:50 (화, 금)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화, 목)		오후반 19:00~20: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